

 <b>국 방 부</b> Ministry of National Defense	<h1>보 도 자 료</h1>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	
보도 일시	이 자료는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.		총 5쪽
배포 일자	2021. 9. 28. (화)	담당 부서	국제정책관실 미국정책과

## 제20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( KIDD ) 회의 결과

□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2021년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( KIDD : Korea-U.S. Integrated Defense Dialogue ) 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습니다.

-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방부 김만기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싯다르트 모한다스 ( Siddharth Mohandas )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양측 대표로 하여 양국 국방·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. 또한, 미 국방부 멜리사 달튼 ( Melissa Dalton ) 전략·기획·능력 차관보 대행이 모한다스 부차관보와 미측 공동대표로 하여 김만기 국방정책실장과 함께 억제전략위원회 ( DSC ) 회의를 주관하였습니다.

□ 이번 회의에서 한미 대표단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으며, 한미연합군이 대한민국을 방어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
- 양측은 '9·19 군사합의' 3주년을 맞이하여, 남북의 군사합의와 유엔사의 지속적인 정전협정 집행 및 관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.

- 양측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하고,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. 또한, 이러한 변화 속에서 외교와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.

□ 양측은 '안보정책구상회의 (SPI : Security Policy Initiative)'를 통해,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였으며, 이를 심화·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
- 양 대표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 (SMA) 의 비준이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성과라고 높이 평가하였습니다. 아울러, 양측은 2021년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 (CCPT) 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.

- 또한, 양 대표는 용산기지 이전계획에 따른 용산기지의 반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 공감하였습니다. 양측은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훈련시설과 자원, 기타 시설에 대한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의 중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. 또한, 양 대표는 금년 한미안보협의회의(SCM)에 앞서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훈련장 공동연구의 진전을 검토하면서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.
- 양측은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보장하고 자유롭고, 안전하며,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, 우주 등 여타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- 아울러, 양측은 3국 공동의 안보이익에 기초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. 또한, 양 대표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 아울러,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포함한 양국의 지역 전략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습니다.

□ 양측은 ‘전작권 전환 실무단 (COTWG : Conditions-based OPCON Transition Working Group)’ 회의를 통해 미래 연합사령부로의 전작권 전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 공감하고, 상호 합의된 「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(COTP)」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.

- 특히, 양측은 「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」의 능력에 대한 포괄적 공동연구 등 올해 수행한 전작권 전환 이행 과업의 추진성과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.

□ 양측은 ‘한미 억제전략위원회 (DSC :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)’를 통해, 역동적인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핵·WMD·미사일 등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맞춤형 억제를 강화하는 연합 억제 및 대응 개념을 논의하였습니다.

- 미측은 핵 및 재래식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.
- 한측은 북한의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한국군의 핵·WMD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.

- DSC 회의의 일환으로, 대표단은 북한의 핵·WMD·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(TTX) 에 참여하였습니다. TTX 결과는 동맹의 연합억제능력 증진과 맞춤형 억제전략 실행력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. 달튼 차관보 대행은 현재 발전 중인 핵태세검토보고서 (NPR) 및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 (MDR) 에 대한 논의를 주관하였으며, 한측은 이에 대한 건설적인 견해를 제공하였습니다.

□ 양측은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회 회의를 마무리하며, 이번 회의가 한미동맹의 굳건한 결속력 재확인, 양국 간 공조 강화, 한미 연합방위태세 제고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.

- 양측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 말 한국에서 개최될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 (SCM) 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거두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
<끝>